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레버쿠젠의 무패행진을 멈춰 세우는데 일등공신인 아탈란타의 공격수 루크먼이 23일(한국시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52경기 무패 '마침표' 레버쿠젠 패배 쓴잔

2023-24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바이어 레버쿠젠의 연승행진이 끝내 멈춰섰다.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하는 등 공식전 52경기 만에 패배의 쓴맛을 봤다.

레버쿠젠은 23일(한국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UEL) 아탈란타(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상대의 골잡이 아테콜라 루크먼에게 헤트트릭을 내주며 0-3으로 완패했다. 레버쿠젠은 361일 만에 패배의 쓴맛을 봤고, 무패 행진은 51경기(42승 9무)에서 멈췄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가 최초 무패 우승(28승 6무)을 달성한 레버쿠젠은 유로파리그와 독일축구협회(DFB)-포칼까지 사상 초유의 무패 트레블을 노렸다. 그러나 이날 무패행진과 트레블이 모두 깨졌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레버쿠젠은 26일 DFB-포칼 결승에서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상대로 더블(2관왕)에 도전한다.

아탈란타는 레버쿠젠의 무패와 트레블

유로파리그 결승전서 완패
伊 아탈란타에 우승컵 내줘
역대 6번째 루크먼 헤트트릭

(3관왕)의 꿈을 한 방에 깨뜨리고 UEL 정상에 올랐다. 각종 대회(2부 리그 제외)를 통틀어 61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962~63시즌 코파 이탈리아(이탈리아 컵)에서 정상에 오른 뒤로 우승과 인연이 없던 아탈란타는 UEL 결승 진출도 처음이었지만 정상까지 도달했다. 세리에A 우승 경험은 아직 없으며 유럽 클럽 국가대항전 우승도 물론 처음이다.

아탈란타의 루크먼은 역대 6번째로 유럽대항전 결승전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루크먼은 전반 12분 아탈란타의 코너킥 뒤 이어진 공격에서 문전 원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고, 전반 26분에는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골대 오른쪽 구석을 겨냥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아탈란타가 역습을 전개한 후반 30분에는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원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패배의 쓴맛을 본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스페인) 감독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알론소 감독은 아탈란타가 우리보다 잘했다. 트로피를 안을 자격이 있다"고 승자를 예우하면서도 속상함을 숨기지 못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었다. 패배라는 게 어색하고도 슬픈 밤이다.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결승전에서 저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알론소 감독은 "52경기 만에 지는 게 정상은 아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무패 트레블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고통스럽다"고 했다.

알론소 감독은 "비록 패배했지만 선수들에게 여전히 고맙다"고 한 뒤 포칼결승전에 대해 "의미가 크다. (오랜만의 패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프랑스오픈 테니스 26일 개막... 나달 '라스트 댄스' 가능할까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가 26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대회 총상금은 5350만 유로(약 791억 원),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240만 유로. 프랑스오픈은 4대 메이저 가운데 유일하게 클레이 코트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라파엘 나달(스페인·사진)이다. 나달은 이 대회 남자 단식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사이에 무려 14번이나 우승한 롤랑가로스의 절대 강자다. 프랑스오픈 통산 전적은 112승 3패로 승률이 무려 97%에 이른다.

1986년생 나달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프랑스오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달이

프랑스오픈에 나오는 것은 2022년 우승 이후 2년 만이다.

2023년에는 1월 호주오픈 2회전 탈락 이후 부상 때문에 1년을 쉬느라 프랑스오픈에 불참했다. 나달은 올해 호주오픈에도 뛰지 못해 지난해 호주오픈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메이저 대회에 모습을 보인다.

1월 호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네셔널을 통해 복귀전을 치른 나달은 다시 다리 근육 부상으로 3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진 끝에 4월 대회 출전을 재개했다. 이후 클레이코트 대회에 세 차례 출전했으나 마드리드 마스터스 16강이 최고 성적이

었다. 현재 세계 랭킹이 276위까지 내려간 나달은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자신의 마지막 프랑스오픈을 우승으로 장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남자 단식 우승 후보로는 현재 세계 랭킹 1~3위인 조코비치, 안니크 신네르(이탈리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가 지목된다. 조코비치는 나달이 불참한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했고, 신네르는 올해 첫 메이저 대회였던 호주오픈 챔피언이다. 알카라스는 2022년



US오픈, 2023년 Wimbledon에 이어 올해는 프랑스오픈 우승 트로피 수집에 나선다.

다만 신네르는 지난해 이 대회 2회전에서 탈락했고, 최근 허리 부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로마 마스터스에 불참하는 등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다. 알카라스도 최근 오른쪽 팔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여자 단식은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우 테크(폴란드)의 강세가 예상된다. 시비우 테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사이에 2021년을 제외하고 세 번이나 프랑스오픈 정상에 올랐다.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 코코 고프(3위·미국), 엘레나 리바키나(4위·카자흐스탄) 등이 시비우테크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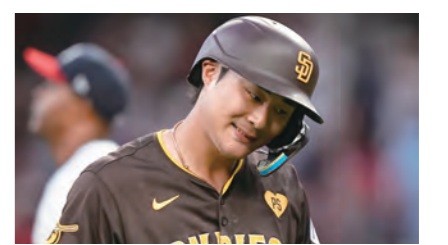
김하성 시즌 첫 결장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29)이 올 시즌 처음으로 결장했다.

김하성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4 MLB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올 시즌 개막전부터 이어온 51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록이 깨졌다.

김하성 대신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타일러 웨이드는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하면서 샌디에이고의 7-3 승리에 힘을 보탤다.

김하성은 올 시즌 힘든 상황에서도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21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더블 헤더를 모두 소화했고, 1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에선 투구에 왼쪽 손등을 맞는 아찔한 장면이 나왔으나 다음날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3일(한국시간)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51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록이 깨졌다. AP=연합뉴스

전에서 선발 출전하며 남다른 정신력을 보이기도 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쉽이 달려온 김하성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BS스포츠는 "단순한 관리 차원의 결정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김하성과 키스톤 콤비를 이루는 산더르 보하르츠는 어깨를 다쳐 장기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